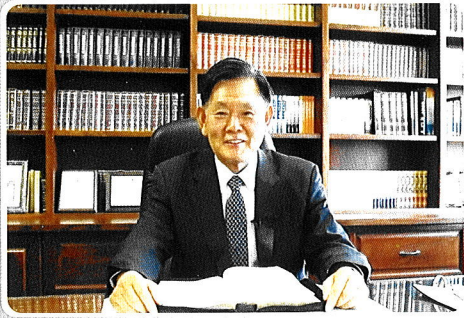
WORLD MISSION UNIVERSITY 24TH ANNUAL
COMMENCEMENT
SATURDAY, JUNE 6, 2015/1:00PM at OMC

INDEX

발행인 송정명
편집인 임성진, 이금희, 임종호, 이황정
발행일 2015년 6월 6일
발행처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www.wmu.edu
design@wmu.edu

24th Annual Commencement

변화 해야 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별 부담 없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는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변화하는 기간이 10년이란 말은 아주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IT 분야는 시간대 별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LA에 앉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 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 바닥만 한 스마트폰 안에 헤아릴 수도 없는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세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사람들 입니다.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율법의 전통과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먼저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심령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변화된 심령들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 해나가야 합니다. 졸업을 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졸업이란 Commencement는 시작이라는 Begining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든 선교 현장으로 나가든 사회로 나가든 여러분들의 앞 날은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도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DNA를 깨운다는 심정으로 캠퍼스 안에 있을 때 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나 상담을 준비 하능 과정도 마찬 가집니다.
지금까지 하던 타성에서 벗어 나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고 권면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학설에 대해 연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 드려야 합니다. IT 분야도 마찬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 공부하며 내 생활 현장으로 접목 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본질 외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귀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 정 명 목사

졸업에 즈음하여

임철현
2014-15 학생회장

몇 년 전 중국에 단기선교를 갔을 때의 일이다. 단기선교의 하루하루 일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저녁 집회가 있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단기선교를 왔다고 하니, 누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줄 알고 그렇게 부탁을 해왔던 것이다. 미리 준비한 설교 원고는 없었지만 전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전할 생각으로 모임 장소에 갔으나, 설교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긴 것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 요즘 저희 학우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면하는 얘기가 있다. 어차피 "WMU"라는 신학교에 들어왔으니 이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학과 공부를 폭넓게 이용해 보라는 것이다. 전공 과목 말고도 설교학 과목과 상담 과목 등을 꼭 신청해서 들으라는 권면이다.

우선 신학교이니 성서 과목 수강은 필수겠지만, 설교 과목들을 더 들어보라 권한다. 꼭 설교 사역을 해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꼭 (설교) 해야 하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기에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꼭 설교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목장이나 구역에서의 인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영적인 사역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가 예를 든 경우처럼 갑자기 설교를 부탁받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불신자에게 전도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복음을 논증해야 할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경을 알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는 '저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회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상담 과목도 마찬가지다. 꼭 목회 상담자로의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목양과 인도 그리고 권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상담자로서의 기본 윤리와 지식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정든 학우들을 떠나 보내게 된다. 구약 시대 '대속죄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나 보내는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꼭 멀리 떠나보내는 것은 아닌데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광야로 보내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다른 학교의 졸업을 대할 때보다, 더욱 마음 한 켠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러나오는 것이 나만의 심정은 아닐 것이다.

부디, 이번 졸업생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깊게 임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충만하여, 어디서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길 감히 축복하며 기도드린다.

졸업생을 위해 기도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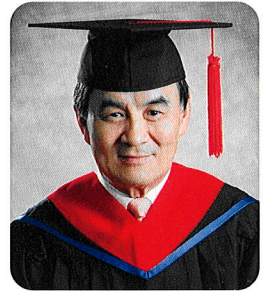
졸업을 돌아보며

졸업생 대표
M.Div. 고돈범선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헌신하는 학생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월드미션 대학교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 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사명 아래,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하여, 쉽지 않았던 모든 교육 과정과 사역 훈련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우리 졸업생들은 월드미션대학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헌신되고 충성 되며 비전을 가진 훌륭한 교수진의 가르침과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과 사역 가운데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삶이 조금은 어려워지고, 사역이 조금씩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며 지내왔던 시간 속에 교수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가르침과 세심한 배려들을 통한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교직원들의 섬김과 학우들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가족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월드미션대학교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해 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믿음은 매일, 매 순간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종으로, 사역자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우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가족이 되어 경험한 그 많은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기에, 우리 졸업생들이 광야에 있거나 사막을 걷는다 할찌라도 그 사랑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월드미션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He who does not lo
for God is love.
this the love of G

지도자가 배워야할 권위의 이슈들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삶은 모든 분야에서 "권위"가 도전을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권위"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있지만 나쁜 것은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이지 참다운 "권위"는 사실상 어느때 보다도 더욱 절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참다운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다. 지도력은 참다운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성숙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할 중요한 요소는 바로 권위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지도자가 성숙해 가면서 특히 사역의 초반부에 지도력의 권위에 관하여 어떤 배움이 있어야 할까?

1 첫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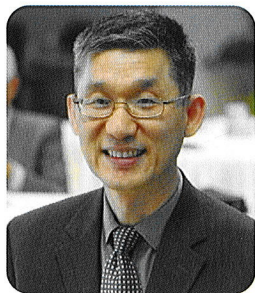
한 사람이 권위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철학이 다를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권위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권위 질서를 세우 시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 속에 일정한 권위의 구조를 세워 두셨다.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그 권위가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면 우리가 저항해야 하지만 그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도자에게 반항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기 쉽지만 사실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추종자들은 지도자처럼 전체를 보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위치에 서보면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자신의 위의 권위에 대하여 순복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한다면 누가 순복할 것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예는 다윗의 경우이다. 사울 왕이 그를 원수처럼 여겨서 몇번이나 죽이려고 하였지만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다윗이였기에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에 팽배해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위의 권위에 순복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즉 집에서는 부모에게, 직장에 서는 상사에게, 학교에서는 스승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지도력 개발에서 초반부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둘째

지도자는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도력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 할 수가 있다. 사실상 지도자가 비젼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갈 때에 순종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힘이 들게 된다. 지도자가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보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도전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도자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권위,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도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반응이다. 지도자가 보여야 할 반응은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일에 정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지키시는 것이다. 지도 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어떤 추종자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 만일 지도자가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면 다른 추종자들은 그 지도자의 모습에 실망하고 도리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옹호하게 된다. 그러나 지도자가 도리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그 모습들을 보고 다른 추종자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는 결국 이런 갈등들을 지혜롭게 넘겨야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건강하게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의 경험가운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권위에 피해를 입었기에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힘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반항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쌀 때에 그들도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도력 개발에서 삶의 후반부에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 셋째

지도자가 바른 권위의 사용을 배워야한다. 권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섬기기 위하여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지도자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주장한 권위주의를 가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위주의를 세상의 이방인들의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자들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적 지도자들은 권위의 사용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져야한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과 사역 속에서 지도자들이 이런 섬김의 지도력이 아니라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권위의 사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의 모범을 통하여 권위의 바른 사용, 섬기기 위한 사용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경적인 권위 사용의 가치관을 배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지도력 사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부정적인 권위사용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워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로 따르는 자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선묵 교수
WMU 대학원장

4 넷째

지도자는 여러가지 종류의 권위를 가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권위는 영적인 권위이다. 영적인 권위란 지도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그 지도자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는 권위를 말하는데 영적인 권위는 주로 인격과 모범과 설득을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한다.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다. 다른 지적인 권위나 지위의 권위 혹은 인격적인 배려에서 오는 권위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취득하는 능력이지만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깊이 다가섬으로 인하여 생기는 열매이고 부산물이다. 우리가 권위를 목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분을 목적하고 나아가고 섬기고 동행할 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임재가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의지해야 할 권위인 것이다. 물론 우리 지도자들에게 다른 모든 종류의 권위와 능력도 필요하다. 지식도 지위도 인간관계도 때로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역이 점점 깊어질수록 지도자들에게는 영적인권위가 요구되는 것이다. 풀러신학교의 클린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영적 권위의 기반위에서 사역을 실행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가운데 권위에 순복하는 일이 힘이 드는가? 그로 인하여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여 지도자와 갈등하고 사역지를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는가?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반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가? 아니면 권위주의에 빠져서 권위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지도자 아래 있어서 힘들어 하는가? 무엇이 참된 권위요 지도력인지 가치관이 혼돈되는가? 아니면 당신의 참된 권위의 필요를 느껴서 찾고 갈구 하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은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도력의 성숙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다. 권위에 대한 바른 통찰을 깨닫고 참다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Spiritual Leadership

동양 인문학과 성경의 만남

세계는 21세기를 맞아 인터넷이라는 문명이기의 발달로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새로운 세상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저편에 사는 오늘날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금속활자의 신기술이 서구 인문학의 부흥을 이끄는데 견인차를 한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은 그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발명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세상은 이 이기(利器)를 통해 우리 세대에 제2의 인문학의 부흥기를 맞을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보아도 과히 틀리지 않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언제나 어디서나 내놓을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되었다. 활자매체를 넘어 음성, 영상, 다양한 방법 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문화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오늘날 교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 운송수단이 발달할 때마다 중세 서구의 교회가 성경과 인문학의 만남을 통해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제2의 인문학의 부흥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잊어버린 뭔가를 다시 찾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게 한다. 예를 들면 논어와 같은 동양 인문학의 정수를 담고있는 고전과 성경의 만남은 예사롭지 않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논어를 비롯한 동양 인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한자(漢字)는 한 자 한 자가 뜻 글자이기 때문에 한 자 한 자 뜻을 살피며 문장을 접하면 문맥을 통해 한 문장으로서 통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한자는 상형문자로 시작했지만, 그 글자가 변형 조합되면서 한가지 이상의 뜻을 담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형성문자 회의문자가 생기면서 글자 하나에 하나의 철학을 담기까지 발전한다.

한문학습 방법의 영향

논문 연구차 청학동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청학동 촌장과 한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자를 읽고 또 읽고 외우는 과정은 단순히 암송의 과정이 아니다. 그 한자에 담긴 뜻과 생각들을 우려내기 위한 과정이다"는 것이다. 상징성과 은유성이 아주 강한 글자이다. 또 한문(漢文)은 글자 한 자 한 자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이 조합되어서 다양하게 재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한글이나 영어와 같은 소리글자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양과 달리 동양의 문화권에는 "화두"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불가의 유래된 단어이지만 한자 혹은 한 단어, 한 문장이 주는 뜻과 영감을 나누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대화나 토론의 주제나 문제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한국적인 학습방법은 한국식 성경을 연구방법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큐티나 말씀 묵상이 쉽게 뿌리내리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성경 말씀 한 자 한 자에 영감이 담겨 있음을 믿는 축자영감설이 쉽게 받아지고 축자영감설 또한 이러한 한국적인 학습법과 쉽게 어우러지는 교리가 되었다고 본다. 한자를 통한 묵상의 훈련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적인 성경해석의 훈련이 된다. 아울러 성경의 더 깊은 원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성경 원어의 풀이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이 동양인문학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꺼내기 위해서는 문자로서 한자를 조금 아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한자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한국인의 정신과 생각을 담아 왔던 글이기에 주의 깊게 보면 한자의 어려움 때문에 단절되었던 우리 선조들의 생각과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논어에 담긴 한 글귀인 교언영색(巧言令色)에 있는 색(色)이라는 한자를 예를 들어 보자. 빛깔을 뜻하는 色이라는 이 문자는 어떻게 동양인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동양인들의 色의 이해

色 얼굴 빛 색: 1) 빛깔, 2) 얼굴 빛 3) 기색
후한(後漢)때 허신(許愼)이 (58경-147경)이 쓴13만3,441자의 한자를 해석해 놓은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마음은 기에 달하고 기는 미간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일러 색(色) 이라 한다(神達於氣 氣達於眉間 是之謂色)"고 정의하고 있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는 말과 같이 '색(色)'은 마음의 작용과 관련하여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뜻하는 말이다. 서양에서 색(color)이 물질의 성질을 표현하는 반면 동양에서 색(色)자는 마음의 성질에 관련된 표현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색은 물질의 객관적인 빛깔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서양의 색의 개념은 객관적인 표현이다. 반면 동양의 색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하나에서 하나의 색을 볼 수밖에 없는 단순한 서구인과는 달리 동양인의 시각은 하나의 사물에서 다양한 색을 본다. 동양인들은 사물의 객관적인 색이 어떠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얼핏 보면 서양 사람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반면 동양 사람은 상대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인들의 형이하학적인 관찰과 동양인의 형이상학적인 관찰의 차이이다.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은 본질적으로 사실을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이지만 어떤 때는 이것은 사실이나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차이를 만들어 낸다. 사실은 색(色)을 정의하는 동양인의 개념은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무한한 창의성과 관용성이 담긴 더욱 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현대 물리학은 빛의 색깔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반사되는 물질에 따라 달라 보여지는 것이 색임을 증명했다. 동일한 태양의 빛이 파란 하늘을 만들고 붉은 노을은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다. 색을 보고 사물을 분별하듯이 사람의 얼굴색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설명한다. 자연 속의 생명이 없는 돌이나 바위와 같은 무생물들은 그 빛깔이 한결같다.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한결 같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르다. 모든 생명들은 푸른 나무처럼 때로는 푸르게 때로는 붉게 옷을 입는다. 철에 따라 자신이 자라기도 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 색도 변한다. 그리고 만물가운데 가운데 사람의 마음만큼 변화무쌍(變化無雙)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얼굴의 빛은 너무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그 얼굴 빛이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이 환자의 얼굴 빛깔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 같은 연유다. 색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은유(Metaphor)와 문화적 편견

동양이든 서양이든 색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어떤 민족들은 검은 빛깔을 어둠,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어떤 민족은 우아함, 신비, 권력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써 사용한다. 검정색 그랜즈차가 한 때 높은 관료들이 즐겨 했던 때도 있지 않는가? 색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 지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색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자 할 때가 많다. 그러면 그 빛깔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색을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단정해 버리면 우리의 사고는 그 상징과 은유(Metaphors)의 지배를 받게 된다. 상징과 비유는 인간의 사고가 만들지만 상징과 은유는 다시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기독교의 이단들이 이러한 심리적인 원리를 사용해왔다. 하나의 비유와 은유를 어떤 뜻으로 단정해 버리면 그 해석이 그 비유에 묶여 버린다. 그리고 그 비유와 은유는 다른 의미를 가진 본문을 자기식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사고의 산물 상징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문화에 독립적인 비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를 관찰하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예로, 성경의 색을 문화적인 편견이 담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사물을 통해 그 색을 가져온다. 수천년 수만년 지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속성이 동일한 창조주의 마음이 담긴 피조물에 담긴 색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셨다. 금, 은, 동, 파란 하늘, 들의 꽃들과 바위들 이것들은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뜻글자인 한자 속에는 동양의 문화가 숨겨져 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학습과 연구에도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된다. 나아가 이와같은 학습방법의 연구와 발전은 한국식 성경 해석학 나아가 동양인의 신앙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토착화 신학으로 한국 신학을 만들어가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유시하 교수
WMU 학생처장

거룩한 낭비

미국에서 알게 된 한 자매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이다. 그녀는 식당에 들어 온 어느 손님이 너무 우울해 보여서 말도 더 건네주고 세심한 마음으로 섬겨주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팁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날 식당에 나가보니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제 온 손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었다. 그 편지 속에는 20불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제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보여 준 친절과 미소 때문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팁을 주고 싶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자매는 그 편지를 읽고서 날아 갈 기분이었다고 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쌀쌀 맞으면 계산적인 사람이 되겠지만, 가족처럼 느껴지면 후한 마음이 들게 된다. 그렇다면 사랑할 때는 어떤가. 사랑하면 계산이 사라진다. 마음이 부요해 진다. 부족한 것을 아쉬워한다. 사랑하면 낭비가 낭비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성경에는 한 여인이 일년 벌어야 살 수 있는 분량의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이야기가 나온다. 얼마나 큰 낭비였는가. 향수가 왜 그렇게 비싸야 만 했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잘 씻지 못하던 문화에서 냄새를 향기로 바꾸어 주는 향수가 여성들에게 소중한 가치였던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난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으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다. 선교나 구제를 위해 쓰라고 주님께 그 향유를 드릴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 달라고 맡겨도 되지는 않았을까.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예배의 동기

마리아의 낭비를 통해서 예배의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배의 최대 쟁점은 동기에 관한 것이다. 예배의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예배에서 첫 번째 물어야 질문이다. 예배는 얻는 시간인가 드리는 시간인가.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는 계시와 은혜라는 진리에서 시작된다. 예배는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예배는 어떤 조건을 위해서 드려져서는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동기여야 한다. 공적을 쌓거나 계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다른 조건 때문에 예배하는 종교적 예배가 많이 있다. 더구나 신을 조종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도 한다.
언젠가 TV뉴스를 통해서 한 은행 직원이 무당 굿 판을 위해 수십억의 돈을 사용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자신의 돈도 모자라 은행 돈을 훔쳐서까지 정성을 보이려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정성을 보여 분개한 신을 달래야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미신은 정성이라는 명분으로 거짓된 행동까지 정당화 시킨다. 그들은 신을 조종할 수 있고 조종하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는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예배는 정성 이전에 진리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 왜 예배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 보아야 한다. 아까운 것은 아까운 것이고 낭비는 낭비이다. 하지만 사랑하면 조건이 없다. 자존심, 재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대한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과거에 어떤 왕도 해 본 적이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 에 와 있는가. 깨달음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지 않는가. 우리의 예배는 달라이 라마 같은 티베트의 수도승으로부터 행복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우리는 예배하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시작되어야 한다.

예배의 대가

예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가는 그 기준과 진실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값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개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분개할 만도 했을 것이다. 지금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다. 그것을 팔아서 구제를 해야지 땅에 부어 버리면 돈의 가치는 즉시 없어지지 않는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더욱 분개 했다고 한다(요12:4-5). 그러면 분개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분개하는 그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옳게 보여진다. 말하는 사람의 동기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능력이 없어서 말을 의존하게 된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분개했었는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돈을 담당한 사람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기에 회계를 맡을 수 있다. 유다는 누구보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다. 계산에 정확해야 돈을 맡기기 않는가. 그러나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위선이 있었다. 유다는 제자들 모르게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요 12:6) 세상과 역사는 이렇게 말과 삶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쓸데 없는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낭비를 낭비라고 말하는가. 자녀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들의 학비를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이 낭비일 수 있는가. 어떤 경우가 낭비인가. 이 세상에 소중한 것 일수록 낭비로부터 주어지지 않는가. 빛과 공기를 비롯해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도대체 얼마로 값이 매겨져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아들을 낭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하나님이 낭비하신 것들이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를 향한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예배가 시간 낭비일 수 있는가. 바쁘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최고 우선순위를 그분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산에 가시는 그 사랑의 낭비를 생각해보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어떤 것도 낭비라고 볼 수가 없다.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너무 비싸서 예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사랑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잴 수가 없다.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것이다. 예배를 낭비라고 비난하는 순간 머리와 가슴은 분리된다. 그러한 마음은 마리아의 열정과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낭비되는 일을 한 적이 혹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정해도 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초점

마리아는 왜 그 향유를 발에 부어드렸을까. 이 행동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서 예배는 어떤 분명한 초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께 나아 온 이유를 잘 알고 계셨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26:12). 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신 흔적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흘려 들었는지 그분이 죽으실 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 분은 며칠 후면 죽으실 분이셨는데 말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중한 생각과 희생의 결심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마땅한가.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 발이 너무도 아름답고 고마운 발로 믿어졌다. 그 발로 가실 걸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발로 보여졌다. 그 발을 한번이라고 씻겨 드리고 싶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녀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 예배는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분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만이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뜨고 감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배의 방법

마리아는 향유를 붓기위해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씻어 드렸다. 그녀가 보여 준 행동은 예배란 깨어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깨어져야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참된 예배는 깨어짐이 있어야 한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기 위해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씻어 드렸다. 그녀가 보여 준 행동은 예배란 깨어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깨어져야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참된 예배는 깨어짐이 있어야 한다. 깨어지지 않으면 귀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옥합이 깨어져야만 향유가 흐른다. 자존심의 옥합, 체면의 옥합, 권위의 옥합이 깨어져야만 참된 예배를 경험한다.

언제 실제로 예배자가 되었는가. 언제 깨어졌는가. 언제 그분 앞에서 계산이 없어져 본 적이 있는가. 예배는 깨어짐으로부터 온다. 또한 예배는 깨어짐으로부터 올 뿐 아니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예배는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지참금을 내놓게 하였다. 아니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은 셈이다. 예배가 당신에게 무슨 대가를 치루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노래를 부르는 수고 뿐 아니라 손을 드는 수고를 치루고 있는가. 성경에서 명령하는 예배에 대한 모든 진리를 치루고자 하는 마음의 수고가 있는가. 춤추는 수고를 치루고 있는가. 소리치는 수고와 잠잠해야 하는 수고를 보이고 있는가.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수고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러한 수고와 낭비를 해야 하는가' 라고 분개했던 유다의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우리의 예배는 깨어짐과 수고가 함께 쓰여져야 한다.

예배의 은혜

참된 예배는 깨어지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만 예배에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순간 그의 머리에는 향기가 묻어났다. 그것이 예배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향기에 더불어 취하게 된다. 요한은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찼다고 증거해 준다(요12:3). 참된 예배는 악취를 향기로 바꾼다. 참된 예배는 관계의 벽을 허문다. 집 나간 자녀들이 그 향기를 맡고 돌아 온다. 참된 예배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참된 예배는 향기로 진동한다. 마리아는 온 몸으로 예배의 비밀을 풀었다. 그녀가 예수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향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향기로 진동하는가를 보며 놀라게 될 것이다. 예배의 능력은 예수님의 발에서 시작된다. 예배의 향기는 예수님의 발에서 나온다.

결 론

우리는 예배로부터 무엇을 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참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제단에는 수많은 순교의 제물들이 바쳐졌다. 물질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 드려졌다. 명예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귀중한 목숨들이 부어졌다. 참된 예배에서 구원과 헌신이 일어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사랑도 알려졌다. 이제는 예배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 참된 예배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한다.

정종원 교수
WMU 음악학과 학부 디렉터

값없는 구원

로마서 12:1~2

M.Div 박노현

"마주치는 눈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정말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아 사랑인가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짝사랑' 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려보이지만 그래도 30대 중반입니다. 뜬금 없는 질문을 한 번 해 볼까요? 짝사랑 해 보신분 있으시나요? 이 질문 보다 '짝사랑 안해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쪽이 더 숫자를 세기 쉽겠네요.
자 이제 제가 왜 '짝사랑'을 들고 나왔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로마서 12: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로마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교회 교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색채를 띌 수 밖에 없었겠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로마서 11: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로 가득찬 로마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없이 기쁘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 켠에 내 민족,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로마서 9:1~5입니다. 계속 해서 로마서10:1절과 로마서 1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2절인데 왜 계속 엉뚱한 곳만 찾아서 읽나 하고 계시지요? '짝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또 도망갔습니다. 롬11:30절을 쉬운성경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비를 얻게 되었듯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방인 되었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좇아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제가 왜 12장이 아닌 9장 10장 11장을 찾아보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말했던 것과 같이 '짝사랑'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12: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당연히 앞 부분에 무슨 말이 있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저에게 그랬습니다. 도무지 1~2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 장들을 읽어 보았더니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짝사랑을 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경험해 보신분들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그 부분까지 닮았나 봅니다.
짝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긍휼'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갈망, 사랑 그것이 긍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1장 35절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드려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말합니다. 엡 2:8~9절을 보면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하면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 속에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 머리는 제사하면 창세기 22장으로 자동반사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진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말이 안됨을 느낍니다. 어떻게 살아 있는 제사를 드리지? 죽은 제사와 살아있는 제사를 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절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세대라고 하면 어떤 세대입니까? 당시는 아마도 구원을 놓고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니야 너희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율법적으로 옳으니 틀리니 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18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을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시대 곧 육체의 일을 따라가던 시대가 바로 '이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제사'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구원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즉, 구원은 너희의 노력과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해 값없이 주었던 은혜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12장을 풀어나가면서 굳이 다시 한 번 구원에 관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의 시대, 육체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준비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힘과 율법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짝사랑의 눈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전히 머물고 계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율법과 육체의 소욕에 묶여 있는 이들에게 찾아 오시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귀 있는 자가 사역자다

요한계시록 3:6, 로마서 12:1~2

M.Div 이찬영

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친근합니다. 십여년전의 대학시절에도 수업 시간에 가끔 들었으며,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 뭔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는 이 표현을 농담조로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영관 교수님의 음악수업 중에도 듣고,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저는 아내에게 듣기도 합니다. 이 흔하면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일곱 교회의 한 교회에 전하는 말을 하고 난 후 꼭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흔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예루살렘 영어성경의 표현이 참 와 닿았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에서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현재진행형(The spirit is saying to the churches)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하나님은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가끔씩 성령받게 하셔서 그의 말씀과 인도를 받게 하셨지만 지금은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 글의 저자인 요한이 쓴 또 다른 책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동안 성령의 이끄시는데로만 사역하셨으며 예수님이 가는 것이 더욱 유익할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그 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의미 중에 제가 일본에서 찬양사역을 할 때 가장 사랑했던 의미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란 의미였습니다. 찬양 안에 거하시며 상담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위로하시던 성령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현재 신학도가 되어서는 보혜사의 또 다른 의미인 변호인이란 의미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변호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요즈음의 변호사는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그가 변호할 사람에게 꼭 해야 할 말만 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그것이 때론 나쁜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법인 성경대로 말하며 성경에 나오는 데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우리 안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회를 준비 하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변호인이 하는 말만 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성령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그 변호인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령은 교회를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한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한 다음 꼭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들이 그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령하나님은 엘에이지역의 각 교회의 일을 통해 엘에이 전 지역, 아니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많은 교회의 문제들과 사건-칭찬을 포함해서-들을 통해 우리 각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한국의 사랑의 교회 문제는 더이상 사랑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두레교회의 사건을 볼니까? 바로 두레교회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사건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귀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채플을 통해서나 선배들에게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인격이 좋은 자가 사역자다, 덕과 인내를 갖춘 인간관계가 좋고, 성경지식이 탁월해야 사역자다,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와야 사역자라든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저는 이러한 사역자가 사역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있는 자가 진짜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역자는 신학교나오고 인격이 좋고 성경연구가 탁월한 설교의 귀재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있는 자로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각 교회에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귀있는 자가 아니라 귀있는 자가 사역자이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귀있는 자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사무엘이 사역자입니까? 그 당시 사사로 칭함을 받던 엘리가 진짜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당대의 진짜 사역자였습니다. 열왕시대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사역자였습니까? 당대의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사역자입니까? 세례요한이 사역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역자입니까?
사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조용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이기 이전에 귀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짜 사역자입니다. 성경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이 좋다란 말은 듣지만 성령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불행하게도 진짜 사역자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목사나 전도사란 직함이 있다고 사역자가 아닙니다. 귀있는자가 사역자입니다. 귀있는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유진피터슨의 메세지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TESTIMONY

한 청년을 변화시킨 편지

가난한 한 청년이 있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다.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급기야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버지마저 돌아 가시고 말았다. 그에게는 홀로 된 어머니 외에 형이 두명, 누나 한명, 그리고 어린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다. 하지만 역시 가난했던 두 형은 그를 도울 수가 없었고, 미국에 사는 누나 역시 삶이 힘든 상황 같았다. 그는 짬이 날때마다 자기 누나를 위로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최대한 예쁘게 글을 쓸려고 노력했고, 편지지 가장자리 빈 공간도 귀여운 삽화로 장식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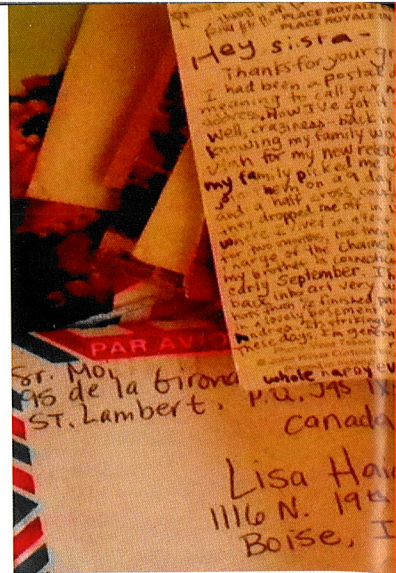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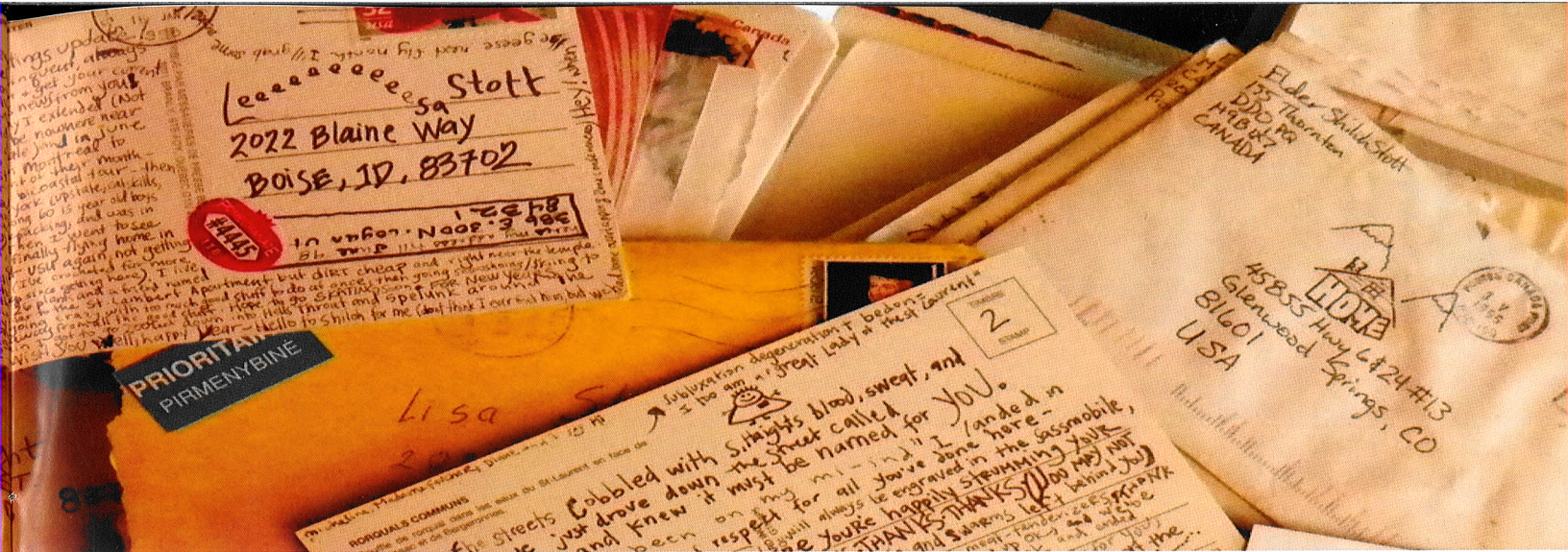
누나는 동생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정성이 담긴 동생의 글은 누나의 깊은 영혼에 젖어들었고, 동생이 있다는 기쁨과 함께 사랑하는 어린 동생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에게 글을 쓰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를 칭찬 해 주었다. "xx야, 너에게는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다음에 훌륭한 작가가 되길 바래. 너의 문체와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럴 때마다 동생은, "고맙네, 누나"하며 가볍게 감사의 인사를 하곤 했지만 동생은 누나가 그저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하는 아부의 말 정도로 받아 들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 청년에게 뜻하지 않게 한 통의 의문의 편지가 날아왔다. 그것은 알라스카에 사는 한 집사님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 집사님은 이 청년에게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다며 칭찬해 주었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에게 결혼 할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에 대해 조언을 해 주셨다.

격려의 편지를 읽은 그 청년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의 죽은 뼈들이 생기를 얻어 되살아 나는 그런 순간이었으리라!.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 당장에 국제 전화를 걸었다. "누나! 누나! 알라스카 에서 한 집사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네. 내가 글을 굉장히 잘쓴대. 누나가 나를 칭찬해 줄때 마다 난 그것이 그냥 하는 소리인줄 알았네.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고 이제야 누나의 말이 진짜임을 알았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혹 아는가?"

누나는 오랫만에 동생의 생기 넘치는 말을 듣고 덩달아 기뻐하며 사건의 여부를 알기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알라스카에서 누가 내 동생에게 편지를 썼을까?" 라며 자문 해 보면서 과거로 필름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청년의 누나는 자기의 한 친구가 하와이에서 그녀를 방문했을때 그 친구에게 자기 동생의 편지를 보여주며 동생에 대해 자랑을 했고, 그 친구 역시 그 편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자기 집으로 돌아 갈때 그것을 가지고 갔으며, 나중에 알라스카 에서 하와이를 방문한 자기 친구 xxx에게 까지 그 편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었다. 알라스카에서 온 그녀는 그 당시에 알라스카 주 하원의원의 부인이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누나는 단 한번 도 이 여인을 만나 본 적이 없었기에 자기 동생 에게 "그 집사님은 알라스카 주 시장 부인쯤 되시나봐."라며 서투른 영어 실력으로 그분 남편의 직분을 정확하게 몰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 이것이 1991년도의 일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세월은 유수같이 흘렀고 시간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청년은 천신만고 끝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자기 마음에 든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 한명과 딸 둘을 낳는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은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했다.

한편 그 전도사의 누나의 남편은 오랜 지병 끝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 가실 것을 안 누나는 그 남편이 살아 계실동안 열심히 간호해 가면서 밤낮으로 공부하여 마침내 간호사가 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남편이 돌아 가신 후 이 타국 땅에 홀로 남게 될 그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다. 그녀가 드디어 간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6 개월의 테스트 기간(Probation period)이 끝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을 데려 가셨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심각한 병을 얻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그녀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래 전 그녀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WMU(Wo-rld Mission University)에 입학하여 온라인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공부하는 도중 그녀에게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은 Oksun Springer 라는 권사님이셨다. 포름에 올려진 이 권사님의 글은 뭔지 모르게 부드러웠고, 그녀의 마음을 매번 감동시키어서 항상 칭찬과 격려의 댓글로 응답해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Oksun Springer라는 학우님으로부터 이 누나에게 이메일이 왔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 알라스카에 사는 xxx입니다. 항상 저의 글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전도사님께 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mailing ad-dress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예쁜 카드 보내 드릴께요. 힘내세요. 임옥선 권사 드림." 2014년 크리스마스쯤에 Oksun 권사님은 이 누나에게 예쁜 카드와 함께 상황버섯을 보내 주셨다. 하지만 그녀는 Oksun 권사님의 성이 임씨라는 것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이 누나는 Oksun Springer라는 이름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 누나의 하와이 친구 xxx에게도 큰 변화들이 있었다. 1997년도에 그녀의 남편은 심장마비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잘 지내시다가 2008년도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누나와 하와이 친구는 서로 연락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이후 xxx는 하와이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이 누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알라스카에 거주하시던 그 집사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집사님은 권사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켈리포니아에 있는 WMU 신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

2013년 크리스마스가 될 즈음 이제 부목사로 일하는 그 동생이 자기 누나에게 전화를 했다. "누나,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몇개월 전에 교회에 사직서를 냈어. 그리고 책을 출간 할려고 하는데 알라스카에서 내게 편지를 보내 주신 그 임옥선 집사님을 찾고 싶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누나는 자기 동생으로부터 이 그 하와이 친구와도 단절이 된지 가 오래고 난 이분을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또 이분이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 분의 남편은 퇴직을 하셨을테고 또 그분의 과거 직분이 시장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분을 간절히 찾는 동생을 도와주고는 싶지만 이분을 찾는다는 것은 미국의 한 속담처럼 마치 짚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Needle in the haystack)과 같아." 그래도 그녀는 인터넷으로 과거 알라스카 시장으로 지냈던 명단을 찾아보다가 결국 찾지 못하자 복도를 서성거리며 몇 마디의 짧은 기도를 했다. "주님, 제 동생이 자기가 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알라스카에 사셨던 임옥선 집사님을 찾기 원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분을 찾겠습니까? 주님이 찾아 주십시오. 제 동생을 위해서 꼭 그분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분 찾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

그 목사는 할 수 없이 그의 처녀작을 출간했다. 책의 이름은, "칼국수 스토리"로 기독교 수필, 에세이다. 이 책에 대한 평판은 의외로 놀라웠다. 그의 책을 읽은 독자들마다 그의 표현력에 감탄을 하였고, 그는 한국 여러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으며, 이곳 저곳에서 강연 초청이 들어왔다.

어느날 새벽 그 목사의 누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뒤척이다가 조금 전 자기 동생의 강연이 유튭에 올려져 있다는 소식을 한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유튭을 통해 "알라스카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강연을 눈을 감고 듣고 있다가 "임옥선"이란 말을 들을때 자기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해 보게 되었다. "알라스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Oksun Springer라는 학우님이 그 사람 아닐까? 아무 이유도 없이 왜 하필이면 그 추운곳 알라스카에서 사시며, 또 그분의 남편이 미국인이 아닌가? 그분의 한국 성이 무엇일까?" 얼른 일어나 컴퓨터로 달려가 그 학우님에게 메일을 보냈다.

"권사님, 권사님 남편의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전에 알라스카 시장이 아니셨나요? 제 동생이 이분의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즉시 대답을 보냈다. "아닌데요. 제 남편은 전에 알라스카 주 하원의원으로 계셨습니다." 이 누나에게 희망의 빛이 비쳤다. 그녀는 그분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혹시 하와이에 사신 xxx를 아십니까?" 결국 이 누나는 이렇게 하여 알라스카에 사신 Oksun Springer권사님이 임옥선 권사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분을 통해 하와이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하셨던 옛날 하와이 친구와 재회를 하게 되었으며,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자기의 목사 동생에게 전해 주었다."

그 목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감격해 하며 주저하지 않고 당장 임옥선 권사님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고, 올 3월에 한국에서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알라스카에서 날아 온 한 통의 편지는 한 무명의 가난한 청년에게 바로 희망의 메세지 였다. 그는 그 희망을 가슴에 품었고, 그것은 시절을 좇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제 그는 마치 독수리가 움켰던 날개를 활짝 펼치며 창공으로 높이 날음과 같이 희망의 날개를 힘차게 펼쳐 전국을 날아다니며 또 다른 무명의 청년들과 가난한 영혼들의 삶을 터치해 주는 사랑과 희망의 메세 지가 되고 있다.

그는 나의 동생 마일두 목사다. WMU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 학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를 변화시 키실 뿐만 아니라 내 동생과 나의 간절한 소원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축복의 통로다.

원격교육 프로그램
M.Div 마명희

2015년 오픈 스쿨 페스티발

2015년 오픈 스쿨 페스티발이 4월14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그 동안 공개강좌와 입학설명회는 각각 개최되었으나 이번 오픈 스쿨 페스티발에서는 프레이즈와 워십을 포함한 3개의 행사가 함께 열림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짧은 시간에 월드미션대학교의 영성과 학문적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 다.

오픈 스쿨 페스티발의 취지는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공개강좌 프로그램에 예배와 입학정보 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좀 더 학교에 대해 많은 정보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오픈스쿨페스티발의 첫번째 순서인 입학설명회에서는 학교안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지원자들과 학과별 교수님들과의 진지하고 효율적인 상담시간이 있 었다. 저녁식사 후 두번째 순서로 월드미션대학교의 영성을 알 수 있는 프레이즈 워십 순서가 있었고, 이어서 세번째 순서인 성서해석학, 상담자의 필수자질, 찬양과 경배, 교회와 음악, 전도와 선교 등의 공개강의를 통해 월드미션대학교의 학업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번 오픈스쿨페스티발에는 많은 입학 지원자들과 재학생들의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행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의 영성과 지성을 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향후 오픈스쿨 페스티발은 미주지역에 기독교 영성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의 월드미션대학교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 받았다.

입학설명회

프레이즈 워십

공개강의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지난 3월 17일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학술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 송정명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담소의 역할과 필요성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피력하였으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미주 한인들을 위한 상담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후원이 필요하다"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상담소에 대한 년간활동보고와 상담자와 내담자 소감발표, MACC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퍼포먼스와 재학생으로 구성된 남성 보컬팀 Jesus Five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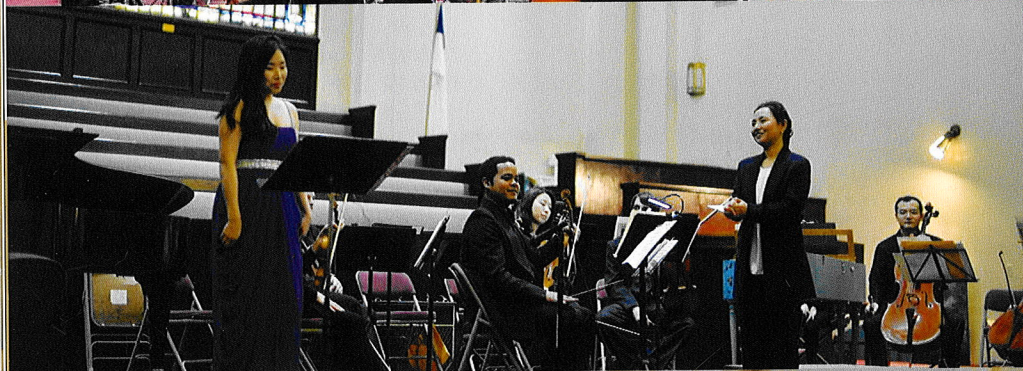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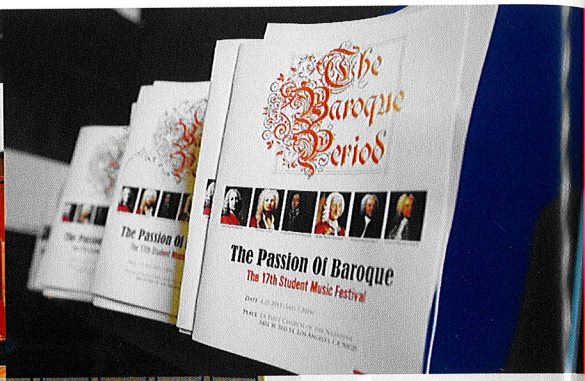
2부 순서로 "ADHD와 우울증 이해를 위한 두뇌 기전"라는 주제로 수산 정 박사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정 박사는 "ADHE는 집, 직장, 학교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 ADHE의 75%가 성인 ADHE로 이어진다"며 "성인 ADHE가 방치될 경우 나타나는 동반질환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5-10%, 우울증 25-35%, 양극성 장애 10-15%, 강박증 30-50%, 약물중독 40-50% 등이 나타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성인 ADHE를 극복한 사람들의 7가지 효과적인 습관으로

1. 잘하는 일을 하라
2. 잘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분담하라
3. 넘치는 힘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연결해라
4. 적당한 수준까지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자
5. 신용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6. 가까운 친구들 몇 명과는 연락을 유지해라
7.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져라"고 강조했다.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상담의 실제에 관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이었다. 기념식과 학술세미나는 기념촬영을 끝으로 은혜롭게 마쳤다.

제 17회 학생음악회

음악과 주최 제 17회 학생음악회가 'The Passion of Baroque' 를 주제 로 4월 25일 저녁 7시 30분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열렸다.
송정명 총장은 인사말에서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그 열정이 아름다운 연주회로 승화될 것"이라 학생들의 노력과 수고로 학생음악회를 준비함을 소개하며 "오늘 연주회는 지역 사회에 우수한 음악문화를 알리고 섬기고자 마련이 됐다.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 월드미션대학교가 땅 끝 까지 주님의 제자 삼는 큰 비전과 사역에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한다" 고 말했다.
이 날의 연주회는 17-8세기 활동했던 프랑스의 Jean Philippe Rameau, 이태 리의 Antonio Vivaldi와 Giovanni Battista Pergolesi, 독일의 Georg Philippe Telemanne과 Johann Sebastian Bach, 그리고 George Frideric Gandel의 작품을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아름답게 연주하여, 11월 14일(토)에 열리게 되는 제 18회 학생음악회를 기대하게 하였다.

제 24 회 학위수여식

• 2015년 6월 6일(토) 오후 1시 • 인도(Presider): 임성진 부총장

* 입 장 (Opening Procession) ····················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
* 개회선언 (Opening Announcement) ···················· 인 도 자
축 가 (Congratulatory Song) ···················· 박선민, 윤주영 학우
기 도 (Prayer) ···················· 조석환 교수
광 고 (Announcement) ···················· 인 도 자
학사보고 (Academic Report) ···················· 인 도 자
학위수여 (Conferring of Degrees) ···················· 총장, 부총장, 이사장
[Degrees Granted: BACC, BAM, BABS, MACC, MAM, MAT, M.Div, D.Min]
총장 훈화 (President's Farewell Address) ···················· 송정명 총장
졸업생 답사 (Graduate's Response) ···················· 고돈범선 학우
* 헌신의 기도 (Litany of Dedication) ········ 졸업생, 회중, 교수단 ···················· 인도 이미자 학우

인도자: 이제 학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졸업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인도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교회와 세상을 위한 말씀중심과 선교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인도자: 성도 여러분, 졸업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 중: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당신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인도자: 존경하는 교수님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단: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떠나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줄 수 없었고, 저희들도 여전히 필요한 용기, 지혜, 믿음, 겸손, 온유,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인도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전 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경건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 교가제창 (School Anthem) ············ 1절: 학생 일동, 2절: 회중과 함께 ············ 다 같 이
* 축 도 (Benediction) ···················· 임동선 설립자
* 퇴 장 (Recessional) ···················· 다 같 이

* 표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 ADMISSIONS@WMU.EDU
WWW.WMU.EDU